

중앙아시아CIS지역의 정치·경제 현황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최 정 희 (KOICA 중앙아시아 CIS팀 전문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중앙아시아CIS지역 현황 및 개발과제
 - 1. 지역 개관
 - 2. 정치 현황
 - 3. 경제 현황
 - 4. 지역협력 현황
 - 5. 역내 주요 2개국 국가개발계획
- III.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원조 환경
- IV. 對 중앙아시아CIS지역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I. 들어가는 말

1991년 12월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하고 독립국가연합(CIS)이 탄생한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사람의 나이로 본다면 유년-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성인이 된 셈이다. 그간 동유럽권에 위치한 CIS 회원국들은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 유럽으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독립 이후의 국가 안정 및 발전을 꾀하여 왔다. 반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CIS국가들은 민족 구성, 정치 문화적 요소, 지정학적인 위치 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경제 개혁을 시도하며 동구권 회원국들과는 또 다른 정치, 경제적 변동을 경험해 왔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자원 보유, 전략

적 요충지 등의 특성을 지닌 중앙아시아CIS지역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외교 및 경제협력 대상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공격적으로 중앙아시아CIS지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여러 방면으로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¹⁾.

우리나라 또한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 교류가 시작된 이래 스탈린 시절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 그리고 '90년대 초반 정식 수교 이후 최근의 대규모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에 이르기 까지 중앙아시아CIS지역 국가들과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91년부터 역내 여러 국가들에 무·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총 약 1억3천1백만 불을 지원하는 등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확대되었다.

중앙아시아CIS지역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구소련 독립 이후 현재까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세계 및 개발도상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보편적 초등교육 및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부문은 2015년까지 지역 내 국가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은 중앙아시아CIS지역이 가진 또 하나의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CIS지역은 신흥거대시장인 인도, 러시아, 중국 등이 인접하고 있는 교차점으로서 이들 3대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들의 경유 지역 및 교통·운송의 거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 집중과 거대 신흥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CIS지역에 대한 기대와 장기적인 전망이 낙관적이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자원 수출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가하면, 에너지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해 세계 유가 등락 및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 취약한 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체제전환국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 개방과 정책 개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주의적 특성 및 다소 비개방적인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고, 신흥경제권에서 나타나는 인프라 낙후로 인한 낮은 생산성, 추구하는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 장기독재에 따른 정치 불안, 부정부패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중앙아시아CIS지역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보고는 현재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현안과 국가 개발 계획 상 우선순위, 그리고 이 지역의 원조 환경 및 지역 협력의 움직임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장 잠재력

1) 이재영 (2009)

을 최대한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CIS지역에서 주요 공여국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다.

이어 본고의 중반과 후반부에서 다룰 예정인 중앙아시아CIS지역 원조 환경 및 ODA지원 시 고려해야할 점,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는 역내 여러 국가 중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중점협력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II. 중앙아시아CIS지역 현황 및 개발 과제

1. 지역 개관

중앙아시아CIS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중앙아시아(Central Asia)라는 용어는 1843년 지리학자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스탈린 통치 이전에는 투르게스탄(Turkestan)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보통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남부를 포함하나, 넓게는 내·외몽골, 중국 칭하이성, 티베트고원,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구소련 독립 후 이 지역 내 ‘-스탄(stan)’이 들어가는 주요 5개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5개국을 중앙아시아라 칭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사안을 논의할 때나 CIS국가²⁾ 중 이슬람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트랜스 코카서스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을 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포함시킨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을 중앙아시아CIS지역의 범위로 다루기로 한다.

2)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ce States, CIS)에는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이 속해있다.

3) 고재남 (2008)

〈중앙아시아CIS지역 주요 6개국 지도〉



출처 : 'http://www.unido.org/index.php?id=o59117000'에서 재편집

중앙아시아CIS지역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이란 및 인도,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카프카즈 지방 및 터키가 위치하고 있어 고대에는 비단길(Silk Road)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내륙 통로의 요충지였다. 최근에는 많은 에너지원이 매장되어있는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 내륙을 통해 흑해 및 중국으로 연결하는 여러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현재 이 지역을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주요 강대국들은 자원 확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과 주변국을 견제하려는 지역 안보적 측면에서 치열한 세력 경쟁을 하고 있다. 국제정치 및 경제의 스포트라이트가 아시아지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현재 추세와 활용 가능한 원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등을 고려해볼 때 중앙아시아CIS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⁴⁾ 또한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의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과 국경 분쟁의 재발 여부,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의 인접성으로 인한 국제적 반테러 및 장거리 미사일 비확산과 관련하여서도 국제적 관심이 큰 지역이다.

4) 이영형 (2011)

중앙아시아CIS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슬람교(수니파)를 국교로 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정교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 접하고 있는 카스피해는 내해(內海)로, 6개국 모두 국제 항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최소 1개 이상의 국경을 통과해야하는 내륙국(landlocked)이다. 역내 6개국 중에서는 현재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이, 인구규모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크다.

〈중앙아시아CIS지역 국가들의 주요 지표〉

| 국가명 | 인구 (백만 명) | 면적(km ²) | GDP(억불) / 1인당GDP(불) (2010년 기준) | 자원 매장량 | | 지형 | 개혁기조 |
|---------|--------------|----------------------|--------------------------------------|--------------|-----------------------------|------------|------|
| | | | | 석유 (십억배럴) | 천연가스 (1조m ³) | | |
| 원유수출국 | | | | | | | |
| 아제르바이잔 | 9.06 | 86,600 | 517.7 / 5,718 | 7 | 30 | 내륙국 | 적극적 |
| 카자흐스탄 | 16.3 | 2,274,900 | 1,491 / 9,132 | 30 | 85 | 내륙국 | 적극적 |
| 투르크메니스탄 | 5.04 | 488,100 | 200 / 3,967 | 0.6 | 265 | 내륙국 | 폐쇄적 |
| 비원유수출국 | | | | | | | |
| 키르기즈스탄 | 5.45 | 199,951 | 46 / 847 | 0.04 | 0.2 | 내륙국 | 적극적 |
| 타지키스탄 | 6.88 | 143,100 | 56 / 820 | 0.012 | 0.2 | 내륙국 | 적극적 |
| 우즈베키스탄 | 28.2 | 447,400 | 390 / 1,381 | 0.594 | 65 | 이중 내륙국* | 부분적 |

* 우즈베키스탄은 국제 항구까지 도달하기 위해 2개 국경 통과 필요

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세계은행), The World Factbook 2012 (미국 CIA), <http://www.eia.gov/countries/>, Central Asia after Fifteen Years of Transition: Growth, Regional Cooperation, and Policy Choices (ADB)

중앙아시아CIS지역은 제 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2,500-3,000억 배럴) 및 천연가스(15조-20조m³)는 미국 내 유전 및 북해 유전 규모를 능가한다.⁵⁾ 광물자원 생산 및 가공, 수출은 역내 많은 국가들의 주요 경제 활동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원유, 석탄, 아연, 망간 등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미비하나, 수자원이 풍부하다.

5) 고재남 (2008)

〈중앙아시아CIS지역 주요 국가들의 자원 보유 현황〉

| 국가명 | 석유 | | 천연가스 | |
|---------|-----------------------------|------------------------------|---|---|
| | 확인 매장량('11) (단위: 십억 배럴) | 일일 생산량('11) (단위: 천배럴/1일) | 확인 매장량('11) (단위: 1조m ³) | 연간 생산량('10) (단위: 십억m ³) |
| 아제르바이잔 | 7 | 989.3 | 30 | 588.9 |
| 카자흐스탄 | 30 | 1,640.2 | 85 | 306.8 |
| 키르기즈스탄 | 0.04 | 0.95 | 0.2 | 0.44 |
| 타지키스탄 | 0.012 | 0.22 | 0.2 | 1.45 |
| 투르크메니스탄 | 0.6 | 223.4 | 265 | 1,599.8 |
| 우즈베키스탄 | 0.594 | 104.9 | 65 | 2,122.8 |

출처: <http://www.eia.gov/countries/> (검색일: 2012. 5. 21)

2. 정치 현황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은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독립국가로서 3권 분립에 기초한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온전하게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내란, 키르기즈스탄은 시민혁명,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직 대통령의 돌연사로 각각 대통령을 교체하였고,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현재까지 정권 또는 대통령 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집권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부자승계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은 독립 이후 지난 20년간 체제 전환, 세계 경제 위기 등 크고 작은 격동기를 경험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및 경제 개혁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비교적 개방적인 개혁 기초를 가지게 되었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아직까지 비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제 개방 속도가 느리고 폐쇄적인 기초를 띤 우즈베키스탄과, 비원유생산국인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키스탄의 경우 지역 내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느리고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중앙아시아CIS지역 국가들의 주요 정치구조 현황〉

| 국가명 | 정치 권력 구조 | | 민족구성 | 종교 |
|--------|--|---|--|--|
| | 대통령 | 입법구조 | | |
| 아제르바이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함 알리예프 (I. Aliyev, '03. 10월 ~현재 : '03년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 사망 후 부자승계) • '09년 대통령 3선 금지조항 폐지, 장기집권 기반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제(125석, 임기 5년) • '02년 비례대표제 폐지 이후 지역구 직접선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제르인(92%), 다게스탄인(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교(93%), 러시아정교(3%) |
| 우즈베키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리모프 (I.A.Karimov) ('92. 1~현재 장기 집권 중) • '07. 12월 재선, 임기 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12월 양원제 전환 • '09. 12월 총선 • 의회 내 정부견제 세력 미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크인(80%), 러시아인(6%), 타직인(5%)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교(88%), 동방정교(9%) |
| 카자흐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자르바예프 (N.A.Nazarbayev, '91. 12월 ~현재 장기 집권 중, 임기7년) • '11. 4월 조기대선 실시, 나자르바예프가 90%이상 압도적 지지로 재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원제 [상원 47명 (임기6년), 하원 107명 (임기5년)] • '07. 8월 총선, 누르오타단당이 하원 전체 의석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인(63%), 러시아인(24%), 우즈베크인(3%)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교(47%), 러시아정교(45%), 기독교(2%) 등 |
| 키르기즈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키예프 (K.Bakiyev, '05. 8월~'10. 4월 사임, 임기5년) • 오투바예바 (Otunbayeva) 과도정부 대통령('10. 6월 국민투표, 헌법개정안 통과와 함께 1년 반 동안 대통령직 수행) • 개정헌법(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 대통령 임기6년, 단임) • 아탐바예프 (Atambayev) 대통령 ('11.12월 당선~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0월 총선 (정당명부식 투표제, 임기5년, 전체 120석을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에서 배분, 5개 정당이 의회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즈인(69%), 우즈베크인(15%), 러시아인(9%)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교(75%), 러시아정교(20%) |

| 국가명 | 정치 권력 구조 | | 민족구성 | 종교 |
|---------|--|--|--|--|
| | 대통령 | 입법구조 | | |
| 타지키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흐몬 (E. Rahmon, '94. 11월~현재 장기집권 중, 임기 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34석(임기5년), 하원63석(지역구 41석, 비례대표 22석, 임기5년) • '10. 2월 총선, 여당 People's Democratic Party가 70% 이상의 지지율 확보 • 정부 견제 야당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인(65%), 우즈베크인(25%), 러시아인(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교(90%), 기타 (10%) |
| 투르크메니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르디무하메도프 (Berdymukhamedov, '07. 2월 취임, 임기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제(125명, 임기5년) • '08.12월 총선(일당 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르크멘(85%), 우즈베크인(5%), 러시아인(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교(89%), 동방정교 (9%) |

출처: 중앙아시아CIS 5개국의 정세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CIA World Factbook 2012, 아제르바이잔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2012-2015

이들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체제 전환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의 개혁 의지와 舊 사회주의로부터 기인한 지역적 정치 문화가 크게 작용하여 권위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각국의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장기집권의 정치체제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 국영기업의 독점, 파벌주의 및 부정부패 심화, 불투명한 행정제도,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 활동의 제약, 언론 통제 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앙아시아CIS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다. 국가별로 권위주의 체제의 강도는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민족·영토 분쟁 등 국가가 직면해있는 외교적 사안이나 국내 정세 등 정치 불안 요인,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06년 안디잔 사태 이후 민주화 유입 차단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EU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및 언론 자유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지만, 정부 측의 통제와 미미한 시민사회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그다지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했다. 한편 정국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6) 고재남 (2010)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소요사태가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또한 '05년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은 지역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키기에는 그 여파가 미약해진 상태여서 당분간은 지역 내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의 거버넌스 현황* ('10)〉

(단위: %순위)

| 항목 | 아제르 | 카자흐 | 우즈벡 | 키르기즈 | 타지크 | 투르크멘 |
|-------|------|------|------|------|------|------|
| 언론자유 | 12.3 | 13.7 | 1.9 | 20.4 | 10.0 | 1.4 |
| 정국안정 | 34.0 | 61.8 | 23.1 | 16.5 | 17.5 | 54.2 |
| 정부효율성 | 22.0 | 44.5 | 23.9 | 30.6 | 18.2 | 3.3 |
| 규제의 질 | 36.8 | 42.1 | 3.8 | 44.5 | 15.8 | 1.9 |
| 법치제도 | 21.8 | 31.8 | 4.7 | 7.6 | 11.4 | 4.3 |
| 부패관리 | 9.1 | 15.3 | 5.7 | 13.4 | 8.6 | 1.9 |

* 점수 낮을수록 하위 순위

출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10, Governance Matters 2010, 세계은행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미약한 거버넌스 상황,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부형태나 관료주의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제도 등이 대부분의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본 유치나 기업 활동 육성, 경제다변화 등을 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또한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이 소수 권력층과 일부 관료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향후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거버넌스의 개선으로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수출로 얻은 정부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균형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는 한편,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제 현황

갑작스런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이어진 구소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직후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은 정치적 불안, 기존의 유통구조 붕괴, 자본시장 미비, 경기 침체, 제한적인 정책 개혁 및 외부 시장으로부터의 고립,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90년대 중반까지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을 나타내어 당시에는 경제 성장 전망이 대체로 어두웠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중앙정부의 경제 개발 역량 및 거버넌스 경험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겪어야 했다.

‘90년대 중반 체제 전환기에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한 역내 국가들은 약간의 속도 차이를 두고 저마다 경제 개발 전략을 세워 대응하기 시작했다. 원유 생산국인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했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그보다 속도가 더딘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몇몇 국가들의 제조업 확대 등을 통한 경제 구조 개혁 시도, 빈곤 감소 노력 등으로 ’04년 이후 소득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유가 상승, 국내 투자 증가, 거시경제 관리 개선, 취업기회 확대 등의 요인이 더해져 지역 내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다.

〈중앙아시아CIS지역 주요 국가 경제 지표 (2010)〉

| 국가명 | 1인당 국민소득 (Atlas기준, US\$) | 물가상승률 (%) | 국가빈곤선이하인구 (’09년, %) |
|---------|-----------------------------|--------------|------------------------|
| 아제르바이잔 | 5,330 | 5.67 | 15.8* |
| 카자흐스탄 | 7,580 | 7.12 | 8.2 |
| 키르기스스탄 | 830 | 7.97 | 31.7 |
| 타지키스탄 | 800 | 6.42 | 46.7 |
| 투르크메니스탄 | 3,790 | n/a | n/a |
| 우즈베키스탄 | 1,280 | n/a | n/a |

* ’08년도 수치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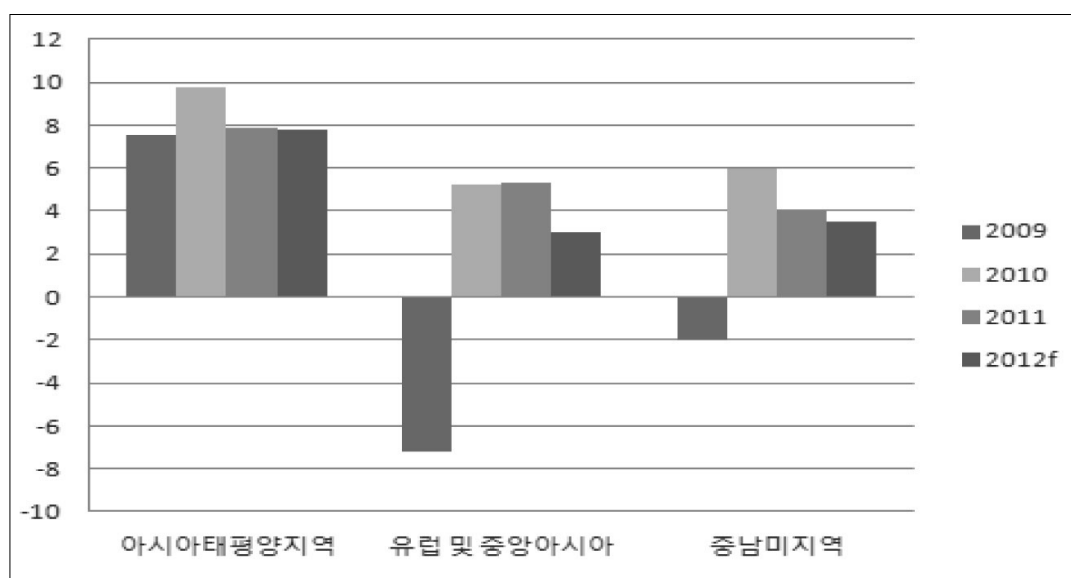
〈주요 CIS국가들의 연간 GDP 성장률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e |
|----------|------|------|------|------|-------------------|
| 아제르바이잔 | 10.8 | 9.3 | 5.0 | 9.6 | 8.5 |
| 카자흐스탄 | 3.3 | 1.2 | 7.3 | 8.4 | 7.8 |
| 키르기스스탄 | 8.4 | 2.9 | -1.4 | 17.0 | 11.0 |
| 타지키스탄 | 7.9 | 3.9 | 6.5 | 12.9 | 10.7 |
| 투르크메니스탄 | 14.7 | 6.1 | 9.2 | n/a | n/a |
| 우즈베키스탄 | 9.0 | 8.1 | 8.5 | 13.0 | 12.0 |
| CIS국가 평균 | 5.3 | 6.9 | 4.5 | 10.0 | 8.7 |

출처 : Inter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CIS 2011 (<http://www.cisstat.com> 검색일: 2012. 5. 21)

그러다가 '09년에 들어와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가 재정 불안 및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상황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소득간 격차가 심화되기도 했다. 키르기스스탄은 IMF로부터 약 1억 불의 구제 금융을 받았으며, 자원 수출과 건설 개발 붐이 일던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도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경기가 냉각되고 투자 부진이 나타났다.⁷⁾ 에너지 및 식량 자급을 우선으로 수출대체산업화전략과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펴오던 우즈베키스탄은 비록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수 및 외국인투자가 위축되어 위기의식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세계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던 점과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나게 했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에너지 부문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GDP의 약 50%, 국가 재정의 약 74%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칫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⁸⁾'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재하고 있다.

〈전 세계 지역별 연간 GDP 성장률 추이 (200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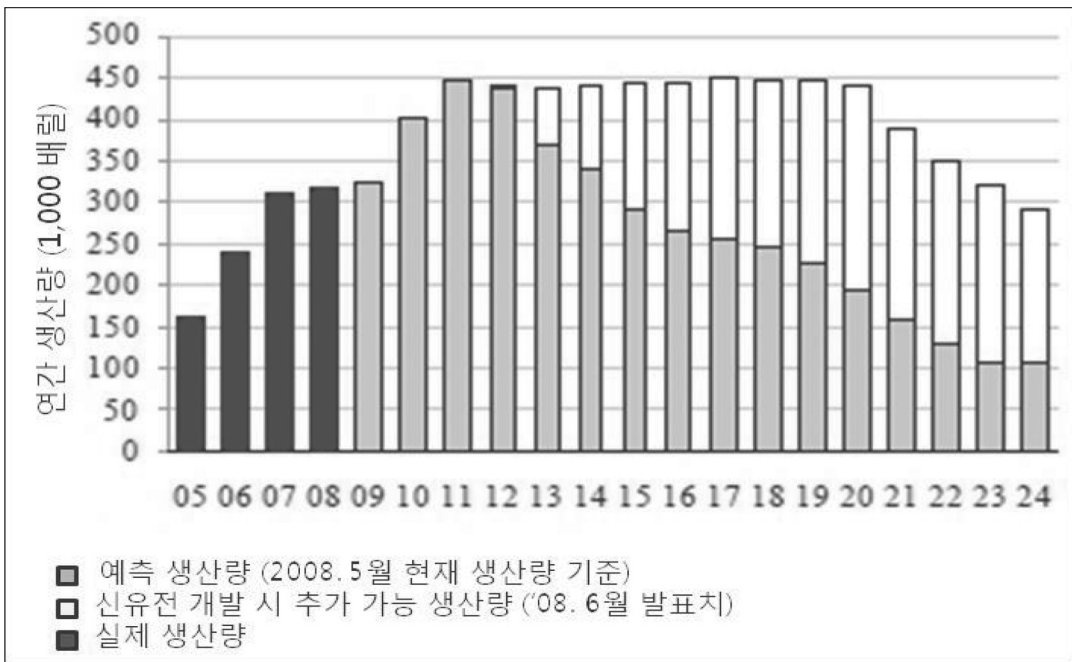
출처: 'http://www.unido.org (검색일: 2012. 5. 21)

7) 배경화 (2011)

8) 자원 부국이 자원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물가와 통화 가치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여 결국 경기 침체를 겪는 현상

자원에 의존한 경제 구조가 가진 취약성은 유가 변동이나 세계 금융 위기에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 외에도 자원이 가진 유한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국제 금융 기구들과 경제 연구 기관들은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의 원유생산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⁹⁾,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벗어나거나 신 유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지역의 경기 침체는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한 역내 국가들은 단기적인 급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 구조의 다변화’와 ‘非에너지분야 산업 육성’을 선결해야하는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생산 예측량 (2005-2024)〉



출처: Azerbaijan Country Economic Memorandum 2009, 세계은행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은 이러한 체제 전환 과정과 경제 위기를 지나오며 성공적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서 개혁의 속도와 기존의 경제 상황에 기반한 정책 조합(policy mix)

9)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하게 되었다. 당시 채택되었던 경제 정책들이 성장을 위한 선행조건, 즉 효율적인 시장 및 생산 기능에 대한 고려,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필요한 법제도 및 행정제도 정비, 기술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부분을 다루지 않은 점,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국영기업의 독점, 구소련시절 방식의 경제 정책 등이 에너지부문 외의 민간부문의 성장이나 시장 발달을 저해한 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국가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 빈곤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어 농업부문 개혁이나 교육, 보건 등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로 부각되었다.¹⁰⁾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농업 및 광물자원 개발 위주에서 제조업 부문으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부문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에너지수출국의 제조업 부문 성장 폭이 비에너지수출국보다 큰 편인데, 이는 에너지 자원 수출로 얻은 국가재정수익을 비에너지부문 육성을 위해 투입하여 지원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경제특구를 설립 추진, 운영함으로 IT·기계·건설·물류 등 비에너지부문 중점 산업 육성, 그리고 이를 통한 외자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역내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의 법·제도적 기반이나 기업환경이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육성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약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부처 간 조정이 미약하여 통상정책이 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 행정 및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물류비용이 높은 점 등은 역내외 교역 장벽이 되고 있으며, 지역 내 중복된 교역 협정이 많아 부패 확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¹⁾ 또한 대부분 역내 국가들에서 사업 등록이나 허가 취득을 위한 소요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강력한 외환 규제가 있어 대외교역 및 국가 경제 회전이 원만하지 않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국가 경제의 폐쇄성이 강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이 미비하고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국가소유라 민간 부문의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 비교적 폐쇄성이 낮고 경제 개방을 확대하여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업

10) Malcome Dowling외 (2006)

11) 고재남 (2010)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제약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금융접근성 및 과세제도 등 제도적 측면을 꼽았다.¹²⁾

따라서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생산 잠재력을 활용해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 구조 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및 제도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개방 경제 체제 안에서 경제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역량 강화에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 협력 현황

지역 정세가 아직 불안정한 점, 국경 간 이동이 복잡한 점, 그리고 최근 들어 지역 내 안보 문제 및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편승하여 중앙아시아 CIS국가들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다자 협력체가 구축되어왔다. 특히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을 엮어 시장 확대가 가능한 측면과 마약 유통이나 반테러 대책 등 지역 공동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식수 및 관개, 산업용수, 전력 발전 등을 위해 한정된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상호 경쟁 구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기후변화 등으로 심화될 경우 국가 간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앞으로 지역 협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협력체 중 하나인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로, 동아시아 5개국, 서남아시아 3개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CIS지역 5개국 및 중동·터키지역 9개국 등 총 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동아시아에 포함되어 ‘06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

12) World Economic Forum (2011)

13) 외교통상부 (2012)

히 에너지안보 및 IT협력분야의 조정국(Coordinating Country)을 맡고 있다. 동 협의체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각 분야별 신뢰구축조치 이행을 위해 논의를 주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진전된 회원국간 신뢰구축분야는 불법마약거래퇴치, 관광, 중소기업, 에너지안보 분야 등이다.¹³⁾

또 다른 협의체인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체(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는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회원국들의 국가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97년에 출범한 협의체로 ’02년부터 장관급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총 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특히 동 협의체는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유럽 재건 및 개발은행, IMF, 이슬람개발은행 및 UNDP 등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합동 지원으로, 교통, 에너지, 무역정책, 무역촉진 등 4개 우선 협력 분야의 지역 정책 환경 개선 등 주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악한 산업인프라, 에너지 불균형, 거버넌스 문제, 무역장벽 등 지역 내 공동 과제들을 해결하여 중앙아시아CIS지역을 유라시아대륙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5. 역내 주요 2개국의 국가개발계획

타 지역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CIS지역 내 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단계별 이행 전략을 명시한 중장기 정책 패키지인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재 중점협력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봄으로서 역내 주요 국가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발과제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은 크게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과 빈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민후생개선전략(Welfare Improvement Strategy: WIS)’과 경제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5개년 계획(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 2011-2015)’ 두 가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민후생개선전략(WIS 2008-2010)을 통해 체제 전환, 경제 다변화, 시장원리 채택,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농촌 소득 증대,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현재 새로 수립되고 있는 2차 국민후생개선전략(WIS II 2011-2014)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속화, 고용 창출, 복지 증진, 산업 현대화,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국민복지증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現 카리모프 대통령 주도로 수립된 산업발전 5개년 계획(2011-2015)은 기존에 경제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던 ‘현대화 및 기술증진계획(2009-2014)’을 대체하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외자 유치 활성화를 보다 핵심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수립된 전략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동 과제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어 경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발전 5개년 계획(2011-2015)은 크게 균형적 산업 발전 및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존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생산설비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추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까지 제조업의 생산 비중을 현재의 38%에서 63%로, 수출 비중을 전체 수출의 7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총 516개 세부사업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의 전체 재원은 약 473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 약 68% 정도가 해외 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동 계획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PPRSD 2008-2015)’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동일 선상에서 선정된 9개 상위 전략 목표와 34개 세부 추진 목표에 대한 이행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9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거시경제 안정성과 非석유분야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한 지속적 경제 개발
- ② 소득 창출 기회 증대와 빈곤 감소
- ③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 ④ 국내실향민(IDPs)의 생활수준 향상
- ⑤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접근성 제고
- ⑥ 사회인프라 및 공공시스템 향상
- ⑦ 지속가능한 환경
- ⑧ 양성평등 증진
- ⑨ 지속적 제도 개혁과 굿 거버넌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지역별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State Program on Socio-

Economic Development of Regions: SPSEDR 2009-2013)'을 수립, 전국을 11개 경제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非석유부문의 발전 가속화, 경제 다변화,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국가개발계획을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과 국가석유기금(The State Oil Fund), 국가사회보장기금(The State Social Protection Fund)과 함께 해외 공여 기관들의 무·유상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경영 및 활용이 동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두 국가 모두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 균형적인 경제 구조 확보 및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경제다변화 및 산업다각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삶의 질 향상과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킴으로서 취약계층 보호 및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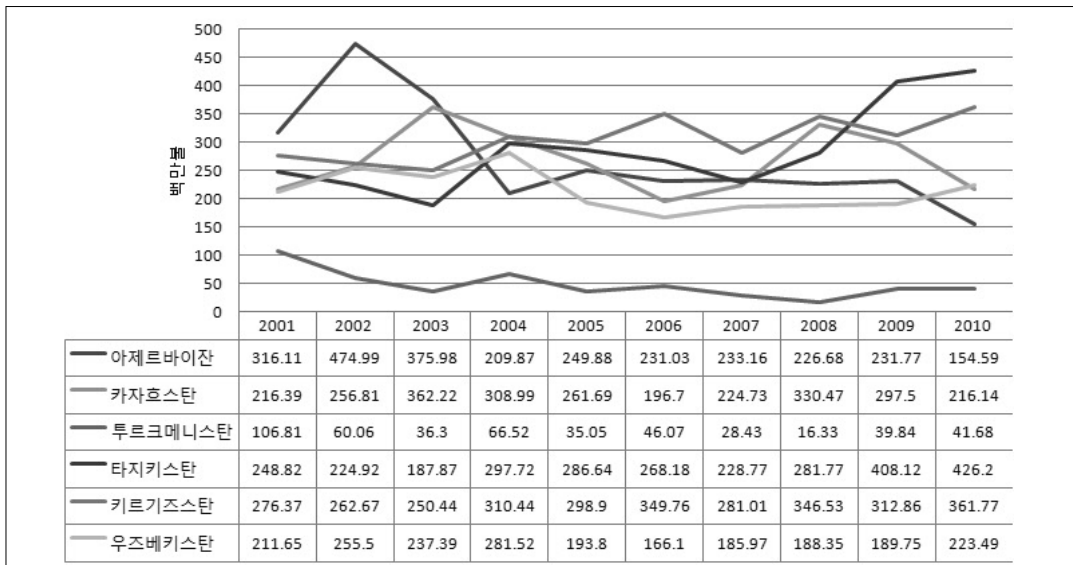
III.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원조 환경

1. 對중앙아시아CIS지역 국제사회 지원 현황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및 공여기관들의 중앙아시아CIS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약 14억 불 규모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다가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던 '08년 즈음에는 다소 주춤하기도 했다.

국가별로 보면, 아제르바이잔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에너지 수출에 힘입은 경제 성장 및 소득 향상 등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점차 지원 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비원유생산국이면서 소득 수준이 아직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국가들 중 개방 기조가 가장 폐쇄적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ODA 수원 규모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아시아CIS지역 국가별 ODA 수원 현황 ('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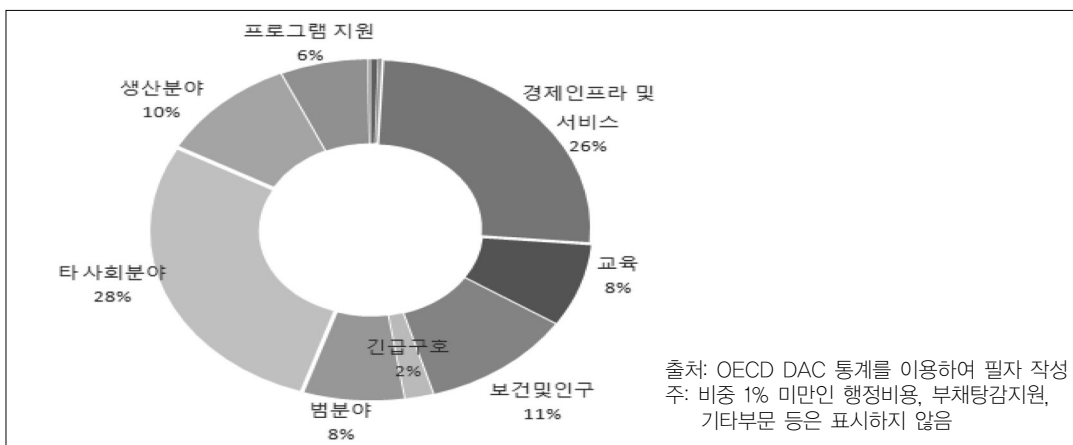


출처: OECD DAC 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주: 수원액은 순 ODA 기준이며, 키르기즈스탄 통계치의 경우 부채탕감지원액은 포함되지 않음

동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ODA 수원액의 분야별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주로 경제 인프라 및 기타 사회 부문에 원조 재원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보건부문과 생산부문에 자원 배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국가에서 구조연방의 잔재인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주력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기타 사회부문에 포함되는 정부 역량 강화 및 공공부문 개선 등에 대한 자원 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향상 및 민주주의 정착 등을 위한 지역적 개발 과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아시아CIS국가들의 분야별 ODA 투입 비중 ('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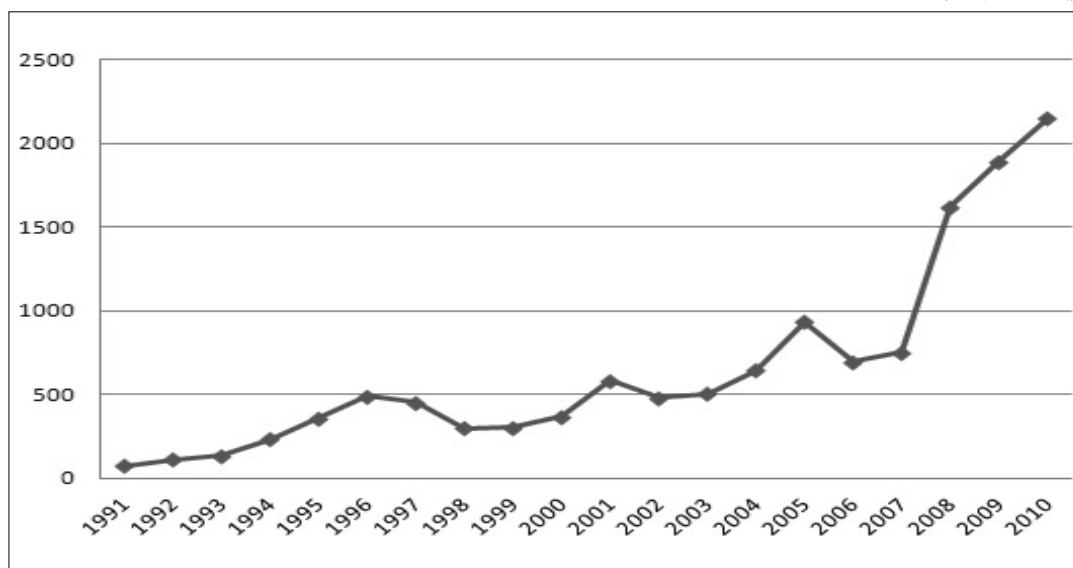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對중아시아CIS지역 무상 ODA 지원 부문을 살펴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20년간 약 1억3천1백만 불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전체 무상원조사업 규모 중 약 5%를 차지한다. 지원 규모 면에서는 '0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ODA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KOICA의 동구·CIS지역 사업 실적 ('91-'10)〉

| 연도 | '91 | '97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계 |
|-------------|------|-------|-------|-------|-------|-------|-------|-------|-------|-------|--------|
| 지원액 (만불) | 74.7 | 451.6 | 504.3 | 643.8 | 932.5 | 697.1 | 752.3 | 1,624 | 1,894 | 2,149 | 13,092 |
| 비율(%) | 5 | 8 | 4 | 4 | 4 | 4 | 3 | 6 | 7 | 5 | 5 |

〈KOICA 중아시아CIS지역 지원 규모 추이 ('91-'10)〉

(단위: 만 달러)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991-2010)

KOICA는 지난 20년간 무상원조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약 24.5%를 공공행정부문에 지원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교육 분야에 약 22.7%, 정보통신분야에 18.7%, 보건의료분야에 약 13.3%를 지원해 왔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기존의 연수 및 봉사 등 인력 중심의 사

업에서 최근 들어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형태의 지원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력 및 에너지, 수자원 개발 등 산업에너지 분야의 개발조사 비중이 증가하여 ODA를 통한 개발협력 뿐 아니라 양자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⁴⁾

2. 원조 환경

앞서 기술한 중앙아시아CIS지역의 정치적 특성과 경제 제반 여건 등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역내 외 교역을 활성화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는 요인들, 특히 지리적 상황 및 열악한 운송·환적 시설에 기인한 높은 물류비용, 만성적인 통관 지연, 복잡한 행정절차 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공여기관들도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원만하지 않은 점,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사결정 및 추진 절차가 복잡한 점들도 원조 환경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원조 총괄 관리 및 조정 역할을 총리실 내 원조조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수준의 총괄책임부처는 경제개발부 및 재무부 등이며, 실제 사업별 수원 부처 및 유관 기관 간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양자 원조사업의 경우 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다자 원조는 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재무부에서 수행, 그리고 수원 관련 중요사항은 내각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원조 총괄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이로 인해 관련 업무 추진 시 시일이 오래 걸린다.

폐쇄적인 국가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원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하고 대외 원조사업 중 국가의 전통이나 도덕적 가치, 문화 보존 등과 맞지 않는 사업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으며, 원조 사업별로 자국 내 특별법에 해당하는 내각령 또는 대통령령을 발의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국 비자 절차가 까다로워 신속한 업무 추진이나 인적 교류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투르크메니스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에 대한 통제가 심하여 사업 수행 시 어려운 점으

14) 한국국제협력단 (2011)

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내 다수의 국가들이 정부 및 행정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 부정부패 해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버넌스의 개선을 국가개발계획에 범분야적 요소로 포함하는 등 거시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굿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민주주의 정착 및 시민사회 활성화, 국민 참여, 정부 및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방 등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점 때문에 장기 집권의 권위주의적인 국가인 경우 거버넌스라는 용어 사용에 아직 소극적이거나 민감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통제가 심하고 대외적으로 단혀져있는 국가 기조는 현지의 공여국간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및 분업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앙아시아CIS국가들 중 대부분에서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공여국 회의나 협의체가 없거나, 공여국 간 회의 개최 사례도 드문 편이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에서도 선진 공여국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공동의 의견을 내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여국 회의가 개최된 적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들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각 공여기관별 지원 분야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¹⁵⁾가 발간되는 등 점차 공여기관간 원조조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지표를 포함한 정부 데이터 및 정보들에 대한 통제가 심해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인 경우가 많아 개발 협력 사업 기획 및 평가 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정부주도의 원조조화 협의체는 없으나 최근 개발효과성 및 원조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공여기관간 협의회의(Donors Coordination Meeting)가 마련되어 매년 약 2회 정도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분야별 워킹그룹도 운영되고 있으나 협의체의 역할은 아직까지 정보 공유 수준에 그쳐, 보다 효율적인 원조분업 및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원조 환경 개선 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IV. 對 중앙아시아CIS지역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은 구소연방 독립 20주년을 맞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꾀하기 위해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별로 추구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동 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

1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 Uzbekistan 2010, UNDP

제적인 현안은 지역 내 선결되어야 하는 개발 과제로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국운이 걸린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 및 여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공여국들이 중앙아시아CIS지역 내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원조 환경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앙아시아CIS지역의 에너지 자원, 전략적 위치, 시장 잠재력 등 실용주의적 가치 그리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결합되어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동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공여국들에 비해 개발원조 역사가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점진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여 우즈베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CIS국가들에서 최근 5년 평균 지원 규모 10위 안(우즈베키스탄은 양자 지원 규모 4위)에 포함되는 역내 주요 공여국가가 되었다. 짧은 기간에 역내 key donor로 부상하기는 했으나, 미국이나 EU, 터키 등 타 주요 공여국들이 지리적 인접성 및 자본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과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강점 및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한 개발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지역 내 역할에 대한 고민이 향후 중앙아시아CIS지역의 국가별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CIS지역 내에서도 국가들마다 개발 정도 및 소득 수준, 보유 자원, 정치 성향, 대외 경제 개방 정도, 경제 및 인구 규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별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국가별 특성 및 환경을 다르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역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 공동적인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다변화 및 산업 다각화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역 국가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에 관심을 가지는 배경 중에 하나는 천연자원의 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非에너지부문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제조업 및 IT부문 등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혁신 지향적 산업 발전,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 다원화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그린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은 많은 중앙아시아CIS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이 중 기술 혁신 기반 산업 발전은 중장기적 전망에서도 지역 내 경제 구조 개혁의 목표 및 과제에 부합한다.¹⁶⁾ IT산업 육성이나 그린 테크놀로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역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 분

야이다. 또한 ODA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이 개발협력사업을 통하여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원동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제 구조 전환 및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확충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선이 중앙아시아CIS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 공공부문 개선 노력에 소극적이거나 거버넌스라는 용어에 대해 정부에 대한 개입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거버넌스 개선 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부처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대 대다수의 국가들이 IT분야 육성 및 국가정보화를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행정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전자정부 확충 및 고도화 사업들을 통하여 부문별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공공부문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타 공여기관들과의 연계 및 원조분업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겠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¹⁸⁾에서 문화 협력 국가로서 러시아보다 한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류가 향후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협력분야에서도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단순 원조를 해온 일본이나, 군사적 혹은 전략적 원조의 이미지가 강한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적 교류 및 기술 협력 형태의 지원이 많아 개발협력분야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도 우호적인 편이다.

따라서 중장기 국내 초청 연수 및 현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인적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고위 정치엘리트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의해 대외 관계가 좌우되고 있는 중앙아시아CIS지역의 특성 상, 양국 고위급 정책 대화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인적·문화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우호적 개발 협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 추진 상 장애가 되는 절차 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6) 무이노프 외 (2010)

17) 배경화 (2011)

18) 윤성학 (2011)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CIS지역 내 지역협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소연방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CIS지역은 지역 정세 안정 및 에너지·수자원 등을 둘러싼 경쟁, 지역 차원의 개발 과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역 협의체들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에너지안보·IT분야 조정국을 담당하고 있는 등 동 지역에서 분야별 리더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지역 협력의 필요성은 중앙아시아CIS지역 입장에서 뿐 아니라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위기 관리 요소로서 강조될 수 있다. 지역협력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지역 정세의 유동적인 변화, 정치·경제적 위험요인들을 조기 진단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거나 공동 대응 노력을 추진할 수 있고, 주요 국가들의 지역 전략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경제협력 및 외교 안보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협의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으로 접근해야하는 개발 과제(예. 에너지 안보, 전염성 질환 등)들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에 기여할 수 있어 지역 내 주요 공여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검색일: 2012. 5. 14)
- CIS국가 통합통계정보시스템 www.CISSTAT.com (검색일: 2012. 5. 14)
- KOI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12. 5. 14)
- 미국에너지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eia.gov/countries/>(검색일: 2012. 5. 14)
-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 (검색일: 2012. 5. 16)
- 한국국제협력단(2011), 한국국제협력단 20년 1991-2010
- 배경화(2011), 기업창업지원분야 경제개발협력 구축방안 -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2011년 3호) p17-34, 한국수출입은행
- 윤성학(2011),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정책대응, KIEP 지역경제포커스(3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2009),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영형(2011), 중앙아시아CIS 5개국의 정세변화 : 자극 요인 및 변화 양태, 국제문제연구 2011 여름 제11권 제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주진홍(2012), 아시아개발은행과 우즈베키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협력 현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영관 외(2011),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재남(2008),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외교정책, 한국의 대개도국 외교 : 평가와 제언 p55-97, 세종연구소
- 고재남(2010),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이노프 외(2010),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구조개혁: 전략적 우선순위와 매커니즘,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경제·자원·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Malcome Dowling외(2006), Central Asia after Fifteen Years of Transition: Growth, Regional Cooperation, and Policy Choices, Asian Development Bank
- UNDP(2010),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 Uzbekistan